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13.(금) 석간 배포 2026. 11. 12.(목) 10:00

‘26년도 상반기 기술금융 테크평가 및 품질심사평가 결과

◈ ’26년도 상반기 테크평가 및 품질심사평가 결과

○ **테 크 평 가** :

- (대형리그) 1위 **하나은행**, 2위 **기업은행**
- (소형리그) 1위 **부산은행**, 2위 **경남은행**

○ **품질심사평가** :

- (품질우수기관) **농협, 아이엠, 신한, 하나, 국민, NICE디앤비, 한국평가데이터, 서울평가정보, NICE평가정보, 이크레더블, 한국기술신용평가**
- (최우수 기술신용평가서) **아이엠뱅크**

◈ **향상된 기술평가 역량** 및 **축적된 인프라**를 통해, 중소·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금융의 **외형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까지 가속화**

금융위원회는 ’26.11.11일(수) **테크평가위원회를 개최**(서면)하여 **’26년 상반기 기술금융 테크평가 결과를 의결**하였다.

1. 테크평가 (은행 기술금융 실적에 대한 평가)

기술금융의 안정적 공급·관리 및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**반기별로 은행의 기술금융 공급실적을 평가**하고 있다.

< 테크평가 개요 >

- (**내용**) **반기별**로 은행권의 ①**기술금융 공급실적** 및 ②**지원역량** 등을 평가
- (**평가대상**) 대형리그(6개은행) / 소형리그(8개은행) / 기타리그(3개은행)로 구분
- (**평가지표**) **정량**지표(공급규모 등, 85점) 및 **정성**지표(인력·조직 등 지원역량, 15점)
- (**평가체계**) 정량평가(금감원), 정성평가(신정원) → 금융연 검증 → 테크평가위원회 의결
- (**결과활용**) 평가결과를 **신·기보 출연금** 가감률에 차등 적용

대형리그(6개 은행)에서는 **하나은행이 1위, 기업은행이 2위**를 차지하였으며, **소형리그**(8개 은행)에서는 **부산은행이 1위, 경남은행이 2위**를 차지하였다.

금번 평가에서 **하나은행**은 **신용대출 및 투자공급액**을 **크게 확대**하여 **최고점**을 받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, **기업은행**은 지난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했었던 **신용대출 및 창업기업 지표**에서 **좋은 점수**를 받아 **상위권**으로 올라섰다.

소형은행 중에는 **부산은행**과 **경남은행**이 금번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, 특히 **부산은행**이 **기술평가 기반 투자**를 **확대**시킴에 따라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다.

< 그간의 테크평가 결과 추이 >

구분		21.上	21.下	22.上	22.下	23.上	23.下, 24.上	'24.下	25.上	25.下	26.上
대형	1위	기업	하나	농협	기업	기업	평가 없음*	**기업**	**기업**	**국민**	**하나**
	2위	하나	기업	하나	농협	하나		**우리**	**농협**	**농협**	**기업**
소형	1위	경남	광주	부산	부산	대구		**부산**	**부산**	**경남**	**부산**
	2위	부산	부산	광주	경남	경남		**경남**	**경남**	**부산**	**경남**

* 「기술금융 개선방안」 마련 등으로 '23년 하반기 및 '24년 상반기 평가 미실시

2. 품질심사평가 (기술신용평가서의 품질 평가)

기술신용평가 품질 개선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품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**반기별로 기술신용평가사 및 자체평가은행의 평가역량**과 **기작성한 평가서의 품질을 평가**하고 있다.

< 품질심사평가 개요 >

- (**내용**) 평가기관 기술신용평가체계 통합 점검
- (**평가대상**) TCB社 6개 및 자체평가은행 8개의 기술신용평가 품질 심사
- (**평가지표**) 품질요건, 내부 품질관리 활동 및 평가서 품질 등
- (**평가체계**) 교수·연구원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품질관리위원회에서 평가

평가 결과, **6개 기술신용평가사*** **모두 "우수" 등급**을 받았으며, 자체적으로 기술신용평가가 가능한 **자체평가은행**(8개 은행) **중 농협은행, 아이엠뱅크, 신한은행, 하나은행, 국민은행이 "우수" 등급**을 받았다.

* ▲NICE디앤비, ▲한국평가데이터, ▲서울평가정보, ▲NICE평가정보, ▲이크레더블, ▲한국기술신용평가

아울러, 평가대상기관이 추천하여 제출한 기술신용평가서를 기반으로 **우수 기술신용평가서**를 **선정**한 결과, **아이엠뱅크**가 "**최우수 평가서**"로 선정되었으며, **나이스평가정보, 서울평가정보, 우리은행**이 **"우수 평가서"**로 선정되었다.

금번 평가에서는 작년 하반기 평가에 이어 **14개 평가대상 기관**이 **모두 "양호" 이상의 등급**을 받았으며, **"우수" 등급**을 받은 기관이 **4개에서 11개**로 **크게 확대**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.

또한, **평가서의 전반적인 품질이 개선**되었으며, 향후에는 평가대상 기관간 **평가서 품질 관련 선의의 경쟁**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.

※ 그간의 품질심사평가 결과 추이

- ('23.上결과) TCB社 : 보통5, 미흡1 / 자체평가은행 : 우수6, 보통2, 미흡1
- ('24.下결과) TCB社 : 우수1, 양호4, 보통1 / 자체평가은행 : 우수1, 양호6, 보통1
- ('25.上결과) TCB社 : 우수1, 양호5 / 자체평가은행 : 우수4, 양호4
- ('25.下결과) TCB社 : 우수1, 양호5 / 자체평가은행 : 우수3, 양호5
- **('26.上결과) TCB社 : 우수6 / 자체평가은행 : 우수5, 양호3**

3. 시사점 및 향후계획

대형은행을 중심으로 기술금융 공급 **증가 추세가 지속***되는 가운데, 각 은행은 **전담부서·인력 운영, 평가체계 고도화, 특화상품 설계** 등 기술금융 **관리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**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, 기술금융의 **객관성 확보 및 신뢰성 제고** 등 **질적 고도화**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.

* 기술금융 잔액 (조원) : ('23) 304.5 → ('24) 302.8 → ('25) 318.7 → ('26.上) 334.5

이와 같은 기술금융의 양적·질적 개선은, 평가기관의 기술금융 관련 **조직체계 및 관리수준이 안착**되었고, **전문인력 비중의 증가** 및 **평가모형의 안정성** 등 **평가품질의 개선**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.

금융위원회는 이번 평가를 통해 **기술금융의 외형적 확대** 뿐만 아니라 **기술평가의 내실**과 **금융지원의 실효성**까지 고려하는 **질적 성장 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**해 나갈 계획이다. 이를 통해 우수한 기술과 R&D성과, IP 등 **기업**에 대한 **실질적인 금융지원**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**기술금융의 질적·양적 성장**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	책임자	과 장 박재훈 (02-2100-2860)
		담당자	사무관 남지윤 (02-2100-2864)
<공동>	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	책임자	국 장 정은정 (02-3145-8020)
		담당자	팀 장 류지성 (02-3145-8040)
	신용정보원 기업금융데이터부	책임자	부 장 엄재철 (02-3705-5939)
		담당자	팀 장 어진원 (02-3705-5957)
		담당자	팀 장 박병주 (02-3705-5955)
	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	책임자	선임연구위원 이대기 (02-3705-6258)
		담당자	연구원 한규희 (02-3705-6381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